지지 선언 · 의혹 공방… 전북교육감 선거전 격화

전북교육 응원 학부모들 · 호남유권자연합 등 이남호 후보 지지 선언

천호성 후보, 장관호 후보와 '호남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공동공약' 발표

이남호 후보 캠프 둘러싼 금품 제공 의혹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라

전북교육감 선거가 본격적인 중반전에 접어들면서 후보를 둘러싼 지지 선언과 각종 의혹 공방이 이어지며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학부모 단체와 시민단체,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민주진보 진영 단체 등이 잇따라 특정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가운데, 금품 제공 의혹을 둘러싼 비판도 거세지면서 교육감 선거가 정책 경쟁을 넘어 정치적 대결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먼저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측은 19일 '전북교육을 응원하는 학부모들' 명의의 지지 선언문을 공개하며 도덕성과 행정 능력을 갖춘 후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교육이 바로 서야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한다"며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 학교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리인 만큼 누구보다 엄격한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남호 후보는 전북대 총장과 전북연구원장 임명 과정에서 이미 공공의 검증을 거쳤고, 풍부한 행정 경험과 예산 확보 능력을 인정받았다"며 "전북대학교 예산 1조 원 시대를 연 경험은 전북교육 발전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좋은 정책도 예산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며 교육재정 확보 능력을 주요 지지 이유로 들었다. 이들은 "도덕성과 능력을 겸비한 후보가 전북교육을 이끌어야 한다"며 이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같은 날 호남유권자연합도 이남호 후보에 대한 지지를 발표했다. 호남유권자연합은 광주·전남·전북 지역 회원 4천여 명이 참여하는 비영리 시민단체로, 정치개혁과 공명선거 운동 등을 추진해온 단체다.

연합 측은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 개혁성을 종합 평가한 결과 이남호 후보가 전북교육 변화와 지역 미래를 책임질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력과 개혁성을 갖춘 후보를 통해 전북교육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전북교육 혁신을 위해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단도 이남호 후보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윤미연 전북회장을 비롯한 12개 시·군 회장단은 "이념과 구호 중심 교육을 넘어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실질적 교육성과를 중심에 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초학력과 미래역량을 균형 있게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이남호 후보는 학력 회복과 디지털·과학 기반 미래교육, 책임교육 실현에 있어 현실적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천호성 후보 측은 민주진보 진영 연대와 정책 공약 발표를 통해 맞대응에 나섰다.

천호성 후보는 장관호 후보와 함께 '호남권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공동교육공약'을 발표하고, 경쟁 중심 교육 체제를 협력과 성장 중심 교육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격차와 입시 중심 경쟁교육을 극복해야 한다"며 "모든 학생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교육 체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공동 공약에는 △호남권 학생 지역대학 등록금 면제 △지역인재 채용 확대 △교사·공무원 시험 가산점 부여 △지역 기반 진로종합센터 구축 △민주시민교육 및 문화예술교육 강화 △생태환경교육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천호성 후보 측은 "호남정신과 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거전이 과열되면서 이남호 후보 캠프를 둘러싼 금품 제공 의혹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열린민주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남호 후보 캠프 핵심 관계자의 언론인 대상 금품 제공 의혹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선거 공정성과 언론 독립성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이남호 후보 선거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연대 측은 "현금 제공 목적과 자금 출처, 캠프 차원의 개입 여부 등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처음에는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하다가 이후 금전 거래 사실을 인정하고 관계자를 사퇴시킨 것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식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감 후보는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책임윤리가 요구되는 자리"라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후보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남호 후보 측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선을 긋고 있다.

전북교육감 선거가 각종 지지 선언과 정책 경쟁, 도덕성 논란이 뒤섞이며 치열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향후 수사 결과와 후보 간 정책 대결이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상근 기자

❶전북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회장단은 지난 18일 이남호 전북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지지 선언을 천명한 뒤, 이 후보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❷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가 장만호 전남광주교육감 후보와 함께 호남권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공동공약을 발표한 뒤 화이팅을 하고 있다.

'과학으로 꿈꾸는 미래'

완주과학축전 23일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과학 체험 축제를 마련한다.

완주교육지원청은 오는 23일 봉서초등학교 강당에서 '2026 완주과학축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과학으로 꿈꾸는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전은 완주 지역 유·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최신 과학기술과 인공지능(AI)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과학문화 행사로 진행된다.

이번 축전에서는 과학·메이커, AI·스팀(STEAM),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 등 30여 개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학생들은 단순 관람을 넘어 직접 만들고 체험하며 과학 원리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을 전망이다.

'과학·메이커 체험마당'에서는 광섬유 스파클 정전기볼 만들기와 풍력자동차 제작, 천체망원경을 활용한 태양 흑점 관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과학적 원리를 배우고 직접 결과물을 제작하는 활동을 통해 창의력과 탐구 역량을 키울 수 있다.

또한 'AI·스팀 체험마당'에서는 로봇 코딩 체험과 인공지능 로봇 강아지 체험, AI 스포츠, AI와 바둑 두기 등 미래형 과학 콘텐츠가 마련된다. 학생들은 첨단 디지털 기술을 쉽고 흥미롭게 접하며 미래 사회 핵심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족 단위 참가자를 위한 '어울체험마당'도 운영된다. 비눗방울 체험과 과학 상식 퀴즈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을 보다 친근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 축전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 중심 프로그램 확대와 함께 중·고등학생까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한 점이 특징이다.

행사 기획에 참여한 전북스팀(STEM)로봇교육연구회 송민규 교사는 "유·초등학생뿐 아니라 중학생과 고등학생도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는 부스를 준비했다"며 "완주 학생들은 물론 인근 지역 학생들도 많이 찾아와 과학의 즐거움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디지털 기반 미래형 평가체제 확대

전북교육청, 초등학교 컴퓨터 기반 총괄평가 실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디지털 기반 미래형 평가체제 확대를 위해 초등학교 컴퓨터 기반 총괄평가(CBT)를 본격 운영한다.

전북교육청은 19일 오후 본청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1학기 초등 컴퓨터 기반 총괄평가(CBT)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CBT 평가를 신청한 도내 초등학교 145개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학교 관리자와 학생평가 담당자, 6학년 담임교사 등이 참석해 평가 운영 방식과 채점, 결과 활용 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CBT 평가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3일까지 학교별로 실시된다. 평가 과목은 국어·수학·영어 3개 교과다.

이번 평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평가 시스템을 활용해 운영되며, 기존 종이시험 형태의 지필평가와 달리 학생들이 컴퓨터나 태블릿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학생들은 화면 속 자료를 분석하고 사고 과정을 직접 표현하는 문항을 수행하게 되며, 동영상과 이미지 등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한 실제 상황 중심 평가도 경험하게 된다. 이를 통해 단순 암기식 평가를 넘어 학생들의 문제 해결력과 디지털 활용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교육청은 CBT 평가의 강점으로 학생 맞춤형 피드백 제공 기능을 꼽았다. 학생 개개인의 성취 수준과 학습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학습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돕고, 교사는 이를 토대로 수준별 맞춤형 수업과 학습 지원에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자동 채점과 결과 분석 기능을 통해 평가의 신뢰성과 효율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문항별 응답 특성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사고 과정과 학습 패턴까지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어 기존 지필평가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CBT 운영을 계기로 디지털 기반 학생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학생 성장 중심의 평가 문화 정착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교육청, 학교장 대상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식중독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장 대상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전북교육청은 19일 전주학생교육문화관 공연장에서 초·중·고·특수학교장과 단설유치원장 등 8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학교(원)장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학교 현장의 위생·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식중독과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감염병 및 식중독 발생 시 대응 방법 △공직자 청렴교육 △식중독 예방을 위한 학교 위생관리 방안 등을 중심으로 실무 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와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 시 대응 절차와 시설 소독 방법, 학교 급식 현장의 위생관리 요령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며 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또한 청렴하고 신뢰받는 학교급식 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교육도 함께 진행해 학교 관리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는 시간도 마련됐다.

전북교육청은 식중독 발생 위험이 커지는 시기를 맞아 학교 현장의 사전 예방 활동과 위생 점검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AI 농업으로 비상하라' … 전북영농학생축제 개막

도내 농업계열 학생 392명 참가… 스마트팜 · 농식품가공 시범 종목 첫 도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미래 농업을 이끌어 갈 청소년 인재 육성을 위한 '제55년차 전북영농학생축제'를 개최한다.

전북교육청은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제55년차 전북영농학생축제'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전북교육청이 주최하고 한국영농학생회(FFK) 전북지부와 한국농업교육협회 전북지부가 공동 주관한다. 해마다 열리는 전북영농학생축제는 농업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농생명 분야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행사다.

올해 축제는 '내일을 위한 오늘의 혁신! AI 농업으로 비상하라'를 주제로 진행되며, 도내 11개 직업계고 농업계열 학생 392명이 참가해 전공 지식과 실무능력을 겨룬다.

행사는 △전공경진 △실무경진 △과제이수 발표 △영농학 골든벨 △예술제 등 5개 분야 20개 종목으로 운영된다. 학생들은 농업 기술과 경영 능력,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19일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제55년차 전북영농학생축제' 개막식이 열린 가운데, 유정기 전북교육감 권한대행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미래 농업 변화에 발맞춰 실무경진 분야에 '스마트팜 운영'과 '농식품 가공' 종목이 시범 도입됐다. 디지털 기술 기반 농업과 농식품 산업 역량을 반영한 종목이 추가되면서 학생들의 실무 능력 향상과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축제 결과에 따라 금상 19명, 은상 38명, 동상 71명에게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상과 한국영농학생회 전북지부장상이 수여된다. 우수 학생들은 오는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대구에서 열리는 전국영농학생축제에 전북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축제가 농업계 고등학생들이 서로의 역량을 공유하고 미래 농업 비전을 모색하는 소통과 성장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축제가 도내 농업계 고등학생들의 도전과 성장, 미래를 준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우리나라 농업을 이끌어 갈 우수한 농업 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오상근 기자

전북교육청, 영유아학교 시범기관 수업 공개

상반기 6곳서 총 14회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영유아교육·보육의 질 향상과 교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영유아학교 시범기관 수업 공개를 추진한다.

전북교육청은 영유아학교 시범기관 운영 3년 차를 맞아 올 상반기 도내 6개 기관에서 총 14회의 수업공개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영유아학교 시범기관은 △충분한 이용 시간 및 일수 보장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 개선 △수요 맞춤형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 △교원 역량 강화 등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핵심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3년간 시범기관을 중심으로 원장·교사 학습공동체 운영과 영역별 세부 컨설팅, 교육과정 실행력 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을 추진하며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에 힘써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두 차례 수업공개를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이 서로의 교육활동을 참관하고 운영 사례를 공유하면서 기관 간 협력 기반을 다지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상반기 수업공개는 19일 전주초록빛유치원을 시작으로 △20일 전주테바솔어린이집 △21일 김제 해바라기유치원 △27일 완주 가온누리어린이집 △29일 전주 쉐마어린이집과 이리성심유치원 등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 가운데 오는 27일 수업공개를 진행하는 완주 가온누리어린이집은 '전북형 새빛영유아학교'로 지정된 기관이다. 이곳은 지역 내 다른 기관 유아까지 함께 돌보는 '거점형 돌봄'을 운영하며 지역 중심 돌봄 체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오상근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민관 청렴 거버넌스 점검 회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청렴 취약 분야 개선과 공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민관 협력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전북교육청은 19일 도교육청 5층 회의실에서 '제1차 민관 청렴 거버넌스 점검단 회의'를 개최하고, 청렴 정책 추진 방향과 부패 취약 분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민관 청렴 거버넌스 점검단은 교육현장과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정책에 직접 반영하고, 청렴 취약 분야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지난 4월 출범한 민관 협의체다.

점검단은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을 단장으로 본청 국장과 감사관, 부서장, 학교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민간 부문에서는 초·중등교장단협의회장과 청렴 시민감사관, 대학 교수 등 5명이 참여해 외부 시각에서 정책을 점검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각 부서가 추진 중인 부패 취약 분야 개선 현황을 공유하고, 현안 과제에 대한 협의와 개선 의견 제시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조직 내 청렴 문화 정착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점검단은 앞으로 △조직문화 △예산 집행 △교원 인사 △일반직 인사 △학교운동부 운영 △늘봄·방과후학교 운영 △현장체험학습 운영 △물품·용역 계약 △급식 관리 △공사 관리·감독 등 10개 분야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